

황순원 시 연구

—시집 《방가》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고 현 철*

목 차

- | | |
|----------------|-----------------------|
| 1. 서 론 | 2-4. 청자지향적 성격과 서술화 경향 |
| 2. 본 론 | 2-5. 시집 《방가》의 의의 |
| 2-1. 과거 상실 의식 | 2-6. 소설과의 연관성 |
| 2-2. 고통의 현재 인식 | 3. 결 론 |
| 2-3. 미래에 대한 신념 | |

1. 서 론

본고는 황순원 문학 연구의 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시론(試論)이다. 황순원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볼 때, 그 반성거리는 다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황순원은 현재 생존하는 작가로서 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져 많은 편이지만,¹⁾ 모두 소설에 대한 연구로 시에 대한 것은 간단한 해설을 포함하여 단 두편에 불과하다는²⁾ 것이다. 이것은 황순원이 소설뿐만 아니라 두

* 양정고교 교사

- 1) 오생근 편, 황순원 연구(문학과지성사, 1985) '참고서지'에 다섯 쪽에 걸쳐 연구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학위논문만 해도 다섯 편이나 된다.
- 2) 김주연, '싱싱함, 그 생명의 미학', 황순원시선집(문학과지성사, 1985) 최동호, '동경의 꿈에서 피사의 사탑까지', 말과 삶과 자유(문학과지성사, 1985) 이 평론은 지금까지 발표된 시작품 전체의 세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시선집을 비롯하여 꾸준히 시를 발표해 왔다는 사실³⁾을 염두에 둘 때, 오직 한면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말한다.

둘째, 황순원 소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절제와 서정, 그리고 구조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그의 소설이 역사나 현실과 무관한 순수문학적 성격으로 파악된다는 어느 정도 과장된 선입관을 심어주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이것은 최근, 그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시대와 역사적 현실이 깊이 투영되어 있음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결과⁴⁾에서 다소 바로 잡힌 면이긴 하지만, 황순원 문학의 전체적인 초상을 그리기엔 아직 미흡한 것이다.

여기서 본고는 황순원의 문학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그의 시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그 연구대상을 첫번째 시집 《방가(放歌)》(동경학생예술좌, 1934)로 한정한다. 두번째 시집 《골동품》(동경학생예술좌, 1936)의 경우는, 거기에 수록된 22편의 시들이 동물, 식물, 정물에 대한 기발한 착상을 간략히 묘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시선집》은 기왕의 시집 두 권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며, 시집 간행 이후의 작품들은 황순원이 아직 생존해 있어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시집 《방가》는 황순원 문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1940년에 첫 단편집 《눈》이 간행되기 이전, 1930년대 그의 문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의 소설이 절제와 서정성으로 이루어져 역사적 현실이 등장인물의 내면에서 암암리에 읽을 수 있는 데 반해, 본고의 전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집 《방가》에서는 역사의식이 절제되지 않은 강렬한 어조로 직접

3) 오생근 편, 앞의 책, '연보'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참고로 하여 시(집)연보를 본고의 맨뒤에 정리해 둔다.

4) 김병익,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 상황과 상상력(문학과지성사, 1979)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현대문학사, 1980. 11)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 말과 삶과 자유.
정과리, '현실의 구조화', 위의 책.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집 《방가》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살펴보려는 본고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그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하나가 될 것이며 황순원 문학의 전체적인 초상을 그리는 데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다.

2. 본 론

2-1. 과거 상실 의식

양상한 바람에 가웃 거리는 갈습을 벗어나 홀러 홀러 내려간 삼처바든 옛터

— ‘황해(荒海)를 건너는 사공아’ 일부⁵⁾

시집 《방가》의 시적 화자는 지나간 우리의 과거 역사를 숭엄하고 위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란한 말굽소리가 대지를 흔들어 노을 세마다
이적(夷狄)의 창과 활사살을 막어, 물리치든 자연의 대참호 였고,
아침 햇빛 마른 짐승에 입마추고 있는 한쌍의 비달기에게 눈을 줄만한 평
화한 새면

가을사달 나린 물우에 천만 사랑의 노래를 불러 띄워 보내는 곳이다.

— ‘압록강의 밤이어’ 일부

우리 조국의 과거공간을 위와 같이 그리고 있는데, ‘평화’와 ‘사랑’이 넘쳤던 곳, 그리고 감히 오랑캐가 발 붙힐 수 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맛당히 숭엄함에 머리를 숙일만’(압록강의 밤이어)하다고 한다. 일제 식민 체제에 의해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적 과거 공간에 대한 향수가 드러나고 있다.

숭엄한 역사적 공간이 ‘삼처바든 옛터’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의 정신적 터전도 잃어버렸다. 시집 《방가》에서는 민족의 잃어버린 과거정신적 가치를

5) 시 인용은 표기와 띄어쓰기를 원문 그대로 한다. 그런데, 원래의 시는 한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여 인용한다. 다만, 한글 표기로 의미 파악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뒤에 괄호를 쳐서 그 한자를 밝혀 놓는다. 이하 인용하는 시도 이와 같다.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이미지로 ‘아버지’가 등장한다.

그는 한때는 위대한 포부와, 영웅적 기상과, 희생의 정신을 갖었고,
세상을 휘흔들 큰 야심을 가져섰다.

- ‘늙은 아버지를 보내며’ 일부

이러한 ‘포부’와 ‘기상’과 ‘희생정신’과 ‘야심’이 있는 위대한 정신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도 ‘은갖 능력은 빼앗겨’ ‘재만 남은 위력’, ‘음죽이는 미-라’(늙은 아버지를 보내며)가 되었다고 절규한다. 이 ‘아버지’가 다른 시(우주를 향하여 호령 하나니)에서는 ‘어버이’로도 나온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 어리운 새파란 환상과 함께 옛힘을 보아야 한다’(늙은 아버지를 보내며)고 하여 그의 ‘옛힘’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뒤에 살펴볼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진다.

2-2. 고통의 현재 인식

요새는 우리에게 더한층 괴로운 여름철이다

- ‘우리의 가슴은 위대 하나니’ 일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불모의 시간,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가치있는 세계가 이미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세계도 아직 있지 않은, 궁핍한 이중의 무의 세계⁶⁾이다. 지금은 오직 ‘더한층 괴로운 여름철’일 뿐이다.

이것이 시집 《방가》에 나타나는 현재에 대한 인식이다.

민족의 역사적 과거 공간이 ‘오늘에는 다뭇 서러운 눈물의 수탄장(愁嘆場)이 되고 말었’(압록강의 밤이어)고, 우리 겨레도 “하로의 삶을 이으려고 삶을 차즈려고/주린 창자를 움켜쥐니후 거리 거리를 헤매는 군중’(가두(街頭)로 울며 헤매는 자여)일 뿐이다. 1930년대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구절은 이것만이 아니다.

6) 하이데거가 쾰테틀린의 서 ‘귀향’을 논하면서 사용한 용어. 김준오, 시론(문장사, 1982), p. 74 참고.

농촌에서, 도회에서, 어촌에서—
 딱딱 베여 나오는 이겨레의 아우성,

—‘팔월의 노래’ 일부

입을 차저 힘업는 거름을 옮기는 사람들,
 이날의 대도회의 수업는 기아(飢兒)나 된듯이
 빈민촌 우리사속에 우물 거리는 미-라들,

—‘이역(異域)에서 부른 노래’ 일부

‘농촌’, ‘도회’, ‘어촌’ 어디에서나 ‘아우성’이며 ‘힘업는 거름을 옮기는 사람들’은 이미 ‘미-라’와 같은 존재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잃어버린 과거의 정신적 가치를 표상하는 ‘늙은 아버지’가 ‘미-라’이라면 ‘아버지’를 잃은 ‘기아’와 같은 현재의 겨레도 ‘미-라’인 것이다.

또한 식민지 체제하에서는 고향도 더이상 평화와 안식을 주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언제나 갓흔 눈물겨운 가슴을 헤쳐 놓는’ 곳이며 ‘정서 빼앗긴 싸늘한 곳’(고향의 품에 안겨서)일 뿐이다.

그런데 <방가>의 시적 화자는 이 숨막힐 것 같은 암울한 시대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대는 변함없이 달빛까지 흐리게할 눈물을 품어야 하고,
 새길울 못 찾겠다고 쓰다놓는 찬 한숨만을 가져야 올흔가.
 안이다.

—‘암록강의 밤이여’ 일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바와 같이 ‘눈물’과 ‘한숨’으로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명한다. 그리고 ‘겨레의 아우성’도 ‘괴로우나마 내가 드러야 할 소린 것 같다’(나의 노래)고 하여 현실에 적극 대처해 나갈 자세를 보이고 있다.

2-3. 미래에 대한 신념

압달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는 정의의 장검을 억센 팔속에 들어보자.

—‘젊은이여’ 일부

<방가>의 시적 화자는 현재의 고통에 주저앉지 말고 ‘어데가지든지 지금의 고통을 박차고, 마음을 살려야 한다’(우리의 가슴은 위대 하나니)는 ‘쑥 잡은

신념'(석별)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은 보다더 빛나고, 즐기찬 기상을 띄일 시련인 것이다.
자, 어서 젊은 우리의 손으로 1933년의 차륜을 힘껏 돌리자.
괴로운 역경을 짓밟고 넘고 넘게 운전하자.

- '1933년의 차륜' 일부

'행복'이 있는 '압날', 즉 꿈이 이루어질 미래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고통은 보다더 빛나고, 즐기찬 기상을 띄일 시련인 것'이므로 '젊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차륜을 힘껏 돌리자', '괴로운 역경을 짓밟고 넘고 넘게 운전하자'고 절규한다.

시적 화자는 또한 일제 식민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반항해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인다.

배암의 입에 물린 개고리도 마즈막 힘까지 반항을 하거든…….
그러타 암흑속에서 여명을 마즈려는 무리야, 이쌍의 젊은이들아
취죽은 듯이 조용히 안저 기다리고만 있을것이 안이다.

- '젊은이의 노래' 일부

'암흑속에서 여명'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만 잇'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즈막 힘까지 반항'하자고 하는 시적 화자는 또한 일제가 틀림없이 패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잔악한 존재여, 날짐생의 통제자여.

(중 략)

한데, 이러듯한 그에게도 슬픈애가 왔다, 그날이 왔다.

지나친 욕망을 채우든 그는 덧에 치우고 말었나니

(중 략)

쇠잔해 진 권력자의 말로여.

- '우리안에 든 독수리' 일부

여기서 '잔악한 존재', '날짐생의 통제자'인 '독수리'는 일제를, '독수리'의 횡포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악한 독재정치를 의미한다.⁷⁾ 일제의 '슬픈애' '쇠잔해 진' '말로'를 상정하고 있는 생각은 '씨러지는 이날의 태양은'이라는 작품에서도 보인다. 이때의 '태양'도 일제를 가리키는 물론인데, 잔악한

7) 김주연, 앞의 해설, p. 149.

일제는 패망하기 마련이며, 이를 위해 ‘그러타, 우리는 태양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황순원 시집 《방가》의 세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는 시는 아래 전문 인용하는 작품이다.

먹장 같은 구름이 휘날고/우주를 저주하는 번개, 우뢰는 천지를 혼든다.
/이제 사오나운 폭풍우는 물려 올 것이며/만경파원(萬頃波原)에 느러선 파
도는 날썰 것이다./사공아, 치를 잡은 사공아,/등대 업는 바다나마 압호로
나아 가려는가,/그러치 않으면 쫓겨 배머리를 돌리려는가./깊은 밤중, 방
향 일흔 나침반만 바라보는 사공의 마음이며.

선인들이 흘리고 간 눈물의 자취는,/양상한 바람에 가웃 거리는 갈숨을 벗
하여 흘러 흘러 내려간 상처바든 옛터는/황해(荒海)를 건느는 젊은 사공의
눈앞에 다져 오나니/그대도 넓히 춤추는 물스금이를 썰아 감업는 눈물을
뿌리려는가, 뿌리려는가.

안이다, 안이다/아사지도록 악문 사공의 이사이로는/금석을 녹킬듯한
/뜨거운 입김이 새여 나오며/재스빛 하늘을 치어다 보는 눈스동자 에서는
/암시의 불타는 빛을 발견 했나니/엄숙한 얼굴은 태풍에 스치어 썸어 짓고,
/서친 팔뚝은/날뛰는 물스결에 시달려 철편갓히 구더 졌다./지금 무엇이
그에게 무섭고, 또한 거리낄 것인가/패배의 눈물도 그의 뺨에서 마른지 벌써
오래다.

그러다면 젊은 사공아, 미더운 일꾼아,/번쩍 고개를 돌려 바라 보아라./
이미 수만은 동지를 잡아갔고 또 잡아갈 바다는,/사나운 물증생이 입을 썸
버리고 사공의 힘 싸지기될 기다리고 있는 바다는/출렁 출렁 대지를 울려
그대를 비웃고 잊지 안느냐?/황해를 건느는 사공아, 피울는 젊은아,/어서
손빨리 풍파와 싸울 준비를 하여라./돛을 나리고 닻을 감어라, 다시 앞만
보고 치를 힘있게 잡아라./그리고 나아가자, 이 노도, 광풍을 쓸고 압호로
압호로—.

— ‘황해를 건느는 사공아’ 전문

여기서 ‘황해’는 이중의 무, 불모의 공간인데, 다른 작품에서는 ‘사막’으
로도 나온다.(사막을 횡단하는 사나이) 이 한 작품 속에 제2연 제1·2행에서의
잃어버린 과거 역사, 제1연 제1·2행과 제4연 제3·4·5행에서의 지속되는
현재의 고통, 그리고 제4연 제7·8·9행에서 궁핍한 현실에서의 미래의 꿈을
위한 신념의 표출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고통의 현재 상황에서
잃어버린 과거를 딛고 미래의 꿈을 위한 신념을 엿보이는 것은 시집 《방가》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세계이다.

이상 살펴본 황순원의 시집 《방가》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은 그가 시집 《방가》를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동경에서 간행한 뒤, 그 이듬해 여름방학에 귀성했을 때 평양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가 29일간 구류를 당했다는 전기적 사실⁸⁾을 해명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시 ‘황해를 건느는 사공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방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청자지향적 성격과 서술화 경향이다.

2-4. 청자지향적 성격과 서술화 경향

황순원 시집 《방가》 전체 27편의 시에서 청자지향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은 23편으로 그렇지 않은 작품은 단 4편에 불과하다.⁹⁾ 여기서 청자지향적 성격이라 함은, 표면에 청자가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함축적 청자일지라도 시의 어조가 청자지향의 명령, 요청, 청유(권고), 애원, 질문(의문), 의심 등의 양상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황해를 건느는 사공아’를 살펴보면,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작품 내용에 이르기까지 자주 청자에 대한 호격을 보이고 있다.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적 청자 ‘사공’에 대한 함축적 화자의 어조는 질문(‘압호로 나아 가려는가’, ‘배머리를 돌리려는가’, ‘눈물을 뿌리려는가’, ‘그대를 비웃고 잊지 안느냐’)과 명령(‘바라 보아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땀을 감어라’, ‘치를 힘있게 잡아라’) 그리고 청유(‘나아가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서술도 현상적 청자인 ‘사공’에 상당히 치중되고 있다.(제3연 전부)

이러한 청자지향적 성격은 시집 《방가》에 수록된 시 제목에서부터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오생근, 앞의 책, ‘연보’.

9) 이 4편은 ‘나의 꿈’, ‘강한 여성’, ‘나의 노래’, ‘이역에서 부른 노래’인데 ‘나의 꿈’과 ‘나의 노래’는 화자지향적인 표현·고백적 시이고, ‘강한 여성’은 화제지향적인 정보적 시이고, ‘이역에서 부른 노래’는 이 두 경향이 결합되어 있다. 김준오, 앞의 책, pp. 206~207 참고. ‘현상적 화자’, ‘함축적 화자(시인)’, ‘현상적 청자’, ‘함축적 청자(독자)’의 개념도 이에 따른다.

호격: 짧은이여, 동무여, 압록강의 밤이여, 가두로 울며 헤매는 자여, 황해
 를 건느는 사공아, 입아
 명령: 더한층 의지가 굿새라, 쾌강(淸江)의 우수(憂愁)에 눈물을 짓지 마라,
 옛 사랑으로 돌아오라
 청유: 쓰진 등대에 불을 켜자

이러한 청자지향적 성격은 화자도 청자화하고, ('내 마음아': 고향의 품에 안겨서, 잡초) 사물도 청자화하여('입새여', '줄기여', '뿌리여', '새엄이여': 잡초, '태양아', '음향이여': 팔월의 노래, '태양아', '불덩아': 썩러지는 이날의 태양은, '독수리': 우리안에 든 독수리, '유리창이여', '등(燈)알이여', '쇠집웅이여': 쓰진 등대에 불을 켜자) 능동기능의 강렬한 목소리를 띠고 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신념과 결부되면 명령, 청유에 의한 행동에의 의식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을 의인화한 '너'에게 말하는 청자지향적 형식은 세계의 자아화라는 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만큼 '거리의 서정적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¹⁰⁾ 이는 시집 《방가》 곳곳에서 보이는 영탄, 호격 등에 의한 감정의 과잉노출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화자가 대상(사물)에 대하여 우월한 관점에 서서, 청자화된 사물이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객체라는 대상에 대한 우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낭만성¹¹⁾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청자지향적 성격은 이 시편들이 청자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및 능동기능에 치중하여, 서정의 간결한 표현보다는 시집 《방가》의 '서(序)'에서 양주동이 말한 바, '말과 토(吐)의 자유로운 구사', '자유로운 대담한 표현', 즉 서사시에 보다 어울릴 만한 긴 호흡을 사용하는 서술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집 《방가》의 세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앞에 전문 인용한 시 '황해를 건느는 사공아'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10) 김준오, 앞의 책, pp. 222~223.

11) 박태일, 1940년 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공간인식의 문제(부산대 대학원, 1984), p. 26.

2-5. 시집 《방가》의 의의

황순원 시집 《방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자지향적 성격과 서술화 경향은 1930년대 당시 현실지향성을 띤 이른바 프로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성격이다.¹²⁾

그런데, 프로시에는 이 청자지향적 성격과 서술화 경향이 당대 현실성을 지닌 시사적인 시어 사용¹³⁾과 독자를 청자로 직접화하는 서정 주체의 비개성화,¹⁴⁾ 그리고 구체적인 소재 선택¹⁵⁾ 등으로 이른바 목적의식에 의한 선동성 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황순원 시집 《방가》에서는 비교적 시사성이 적은 시어 사용과 개별 시 안에서의 개성적인 청자, 그리고 비특정의 소재 선택으로 미학적으로 일정한 서정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로시가 받는, 내적 긴장감이나 표현상의 미적 장치가 결코하지 못하다는 미학적 측면에서의 비판¹⁶⁾을 시집 《방가》는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지·신념이 표출되고 있는 시집 《방가》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나온 뒤에 바로 미래에 대한 신념을 충분히 내면화하지도 않고 청자(젊은이, 동무, 아들·딸, 양군, 사공, 무리 등)에게 명령 혹은 권고하는 강렬한 어조를 띤 시편들이라 ‘부르지즘’(방가를 내노흐며: 自序)이 강한 만큼 시로서의 형상화가 좀 덜된 시편들이라 할 수 있다.

《방가》에서 드러나는 역사의식이 단선적이며 깊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바

-
- 12)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1920~30년대 한국프로시의 전개과정’, 카프문학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89). 여기에서 주로 프로시의 서술화 경향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작품을 보면 청자지향적 성격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13) 박민수, 현대시의 사회사학적 연구 (느티나무, 1989), pp. 152~153. 여기서는 1920년대 프로시를 논하면서 언급한 것이나, 1930년대 프로시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 14)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앞의 논문, p. 128. 이것은 프로시가 일종의 교설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15) 김성운, ‘1920~30년대 경향시의 흐름’, 카프시전집 1(시대평론, 1988), p. 25 참고.
- 16) 박민수, 앞의 책, p. 165. 이것은 프로시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언급은 서정성의 미학이란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고, 프로시는 다른 측면에서의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용한 책에서도 그 뒤에서 프로시가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존재론적 사회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로 이 때문이다. 이는 시집 《방가》가 출간된 것이 그의 나이 20세인 때라는 전기적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도 감정이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시집 《방가》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한계점이 된다.

그런데, 시집 《방가》는 1930년대 시 경향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에서 보면 그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당당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최근의 연구 성과¹⁷⁾에서도 1930년대 시의 주류는 시문학과·생명파 등의 순수시 내지 전통시와 김기림계열의 모더니즘이었고, 둘 다 시대와 역사적 현실을 배제한 것이 그 공통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배제의 시 일각에 1920년대 프로문학의 연장인 이른바 김창술·유완희 등의 프로시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단적 상황과 관련 시켜볼 때, 황순원 시집 《방가》는 당시 주된 시의 경향에서 벗어나 시대와 역사적 현실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지향성을 추구한 시의 주 경향인 프로시도 아닌, 드문 예에 속하므로 시집 자체가 시사적으로 어떤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황순원 시집 《방가》의 시편들이 서술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1930년대에 이른바 서술 혹은 서사시가 대량 등장한다는 사실¹⁸⁾과 관련시켜 볼 때, 1930년대 시문학의 주류를 현실 배제의 시 경향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1930년대 시문학 전체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2-6. 소설과의 연관성

황순원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시대와 역사적 현실이 깊이 투영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주4 참고)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김병익의

17) 박철석, '1930년대 시의 사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10집(한국문학회, 1989)

18)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 역, 지새는 밤 (동아일보, 1930. 12. 9~12. 29).

_____, 아낙네 일생(신가정, 1933. 9)

노자영, 은하월(銀河月)의 낙금보(落琴譜) (신인문학, 1934. 7)

임학수, 천우(신가정, 1935. 3~5)

김해강, 홍천몽(紅天夢) (조선문학, 1937. 3)

참고로, 발표될 때 김역의 '지새는 밤'에는 "장편서정서사시"라는 명칭이, 김해강의 '홍천몽'에는 "장편서정시"라는 명칭이 붙어 있음을 밝힌다.

글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을 보면, 황순원의 소설은 역사나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내면화하여 그 상황의 시대적 의미를 탐구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별과 같이 살다(40년대) : 봉건지주의 타락과 시대 변동을 타는 출세주의자의 착취로 희생된 한 무식한 여인의 수난과 해방이 되면서 슬하게 생겨난 난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 치하로부터 해방 후의 또 다른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혼란과 궁핍을 추적하고 있다.

카인의 후에(50년대) : 공산정권이 야기시킨 골육상쟁과 정치적 무질서, 사회 전반에 걸친 풍속적 변모를 한 지방 지식인에게 내려지는 핍박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인간집목, 나무들 비탈에 서다(50년대) : 한국전쟁의 참담함과 이 현실의 가혹스러움에 짓눌린 인간들의 파탄을 묘사한 전후의 작품이다.

일월(60년대), 움직이는 성(70년대) : 사회적 신분 계층의 이동이 보여주는 갈등과 정신의 정착을 얻지 못한 한국인의 근원적인 심상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따라서, 갈래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런 소설들에 앞서 이루어진 1930년대의 시대현실과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집 《방가》는 위의 소설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황순원은 1930년대에는 서술화 경향의 시를 선택하여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데 반해, 1940년대부터는 주로 장편소설에서 시대현실과 역사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문학의 첫 출발인 시에서는 청자지향의 절제되지 않은 강렬한 어조로 직접 드러나 있고, 이후 소설에서는 절제와 서정성, 그리고 객관적이고 세밀한 묘사에 의해 인물의 내면에 암암리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이 인식과 형상화의 산물이라면, 첫시집 《방가》는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형상화가 좀 덜 된 것이며, 이후의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대결을 통한 형상화보다는 인물의 내면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투영한 인물 중심의 형상화에 치중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거의 소설만 연구되어 왔던 황순원의 시집 《방가》를 연구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살펴본 본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식민 체제에 의해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적 과거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종의 무, 불모의 세계인 현재상황에서 지속되는 고통만 인식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신념에 찬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으로도 나타난다.

넷째, 시집 《방가》는 청자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자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진 1930년대 당시의 프로시와는 달리 미학적으로 일정한 서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거리의 서정적 절뚝과 대상에 대한 우월한 자세만을 유지하는 낭만성이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시대와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방가》는 서술화 경향이라는 성격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실지향성의 1930년대 당시 프로시와 서술 혹은 서사시의 대량 등장과 관련하여 볼 때, 1930년대 시의 주류를 시문학과·생명파 등의 순수시 내지 전통시와 김기림계열의 모더니즘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 등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다섯째, 기존 소설 연구의 성과와 관련시켜 볼 때, 시집 《방가》가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형상화가 좀 덜된 것이라면, 이후의 인물 내면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소설에서는 절제와 서정성, 그리고 객관적이고 세밀한 인물 묘사 등의 인물 형상화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순원 문학 연구는 소설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소설에 서정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시에서도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집 《방가》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살펴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며 그의 문학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설 뿐만 아니라 시집 《방가》, 《골동품》

이후에도 꾸준히 발표된 시에 대한 연구도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이 두갈래의 상관관계에서 그 의미망이 정밀하게 포착되어 보다 정확한 문학적 초상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 시(집) 연보

< >는 시집 제목임

시(집) 제목	발표지(시집의 경우, 발행처)	년 월 일
나의 꿈	동광	1931. 7.
아들아 무서워 말라	〃	1931. 9.
묵상	조선중앙일보	1931. 12. 24
젊은이여	동광	1932. 1.
가두로 울며 헤매는 자여	혜성	1932. 4.
너일혼 그의 압가슴을 향하여	동광	1932. 5.
황해를 건너는 사공아	〃	1932. 7.
써러지는 이날의 태양은	신동아	1933. 1.
<방가>	동경학생예술좌	1934. 11.
밤거리에 나서서	조선중앙일보	1934. 12. 18
새로운 행진	〃	1935. 1. 2
귀향의 노래	〃	1935. 1. 25
거지애	〃	1935. 3. 11
새출발	〃	1935. 4. 5
밤차	〃	1935. 4. 16
가로수	〃	1935. 4. 25
굴뚝	〃	1935. 5. 7
고향을 향해	〃	1935. 6. 16
오후의 한 조각	〃	1935. 6. 25
고독	〃	1935. 7. 5
찾속에서	〃	1935. 7. 26
무덤	〃	1935. 8. 22
개미	〃	1935. 10. 15

시(집) 제목	발표지(시집의 경우, 발행처)	년 월 일
도주, 잠	창작	1936. 4.
《골동품》	동경예술학생좌	1936. 5.
칠월의 추억	신동아	1936. 7.
과정, 행동	작품	1938. 10.
무지개가 있는 소라껍데기가 있는 바다, 대사	단층	1940.6.
그날, 당신과 나, 신음소리, 골목, 열매	관서시인집	1946. 1.
저녁 저자에서	민성(民聲)	1946. 7.
향수, 제주돛말	한국시집	1952. 12.
나무	새벽	1956. 1.
세레나데	한국시집	1960. 4.
동화, 초상화, 헌가	현대문학	1974. 3.
공예의 의미	〃	1974. 12.
돌, 늙는다는 것, 고열을 앓으며, 겨울 풍경	한국문학	1977. 3.
전쟁, 링컨이 숨진 집을 나와, 위치, 숙제	현대문학	1977. 4.
모란 1, 2	한국문학	1979. 5.
꽃	〃	1980. 6.
낭만적, 관계, 메모	현대문학	1983. 3.
우리들의 세월	월간조선	1984. 3.
도박	한국일보	1984. 3. 25
밀어, 한 풍경, 고백	현대문학	1984. 7.
기운다는 것	문학사상	1984. 10.
《시선집》	문학과지성사	1985. 3.

* 참고 : 1984년까지 발표된 시 편수를 살펴보면, 시집 《방가》에 27편, 《골

동품》에 22편, 그리고 신문·잡지에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시선집》에 묶인 작품 47편, 여기에다가 신문·잡지에 발표만 되고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 10편, 그래서 전체 106편으로 산출된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발표된 시는, 그해 발표된 시·소설들이 자료 정리되어 있는 <문학사상> 1985년~1988년 매해 12월호의 ‘소설·시 총 목록’에 보면 한편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9년에 발표된 시는 <문학사상> 12월호에 그해 발표된 작품들이 자료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확인할 수 없지만, 1990년 5월에 나온 ‘남북한 문학사 연표(<한길문학> 권권 특별 기획 1)를 보면 아마 한 편도 없는 것 같다.

참 고 문 헌

* 자 료

황순원, 방가 (동경학생예술좌, 1934)

* 논 저

김병익,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 상황과 상상력(문학과지성사, 1979)

김성윤, ‘1920~30년대 경향시의 흐름’, 카프시전집1(시대평론, 1988)

김주연, ‘싱싱함, 그 생명의 미학’, 황순원 시선집(문학과지성사, 1985)

김준오, 시론(문장사, 1982)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 말과 삶과 자유(문학과지성사, 1985)

박민수, 현대시의 사회사학적 연구(느티나무, 1989)

박철석, ‘1930년대 시의 사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10집(한국문학회, 1989)

박태일, 1940년 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공간인식의 문제(부산대 대학원, 1984)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1920~30년대 한국프로시의 전개과정’, 카프문학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89)

오생근 편, 황순원 연구(문학과지성사, 1985)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0. 11)

정과리, '현실의 구조화', 말과 삶과 자유

최동호, '동경의 꿈에서 피사의 사탑까지', 위의 책.